

“득점 찬스에 강한 야구 완성”

■ 전훈 마친 KIA 서정환 감독

“득점찬스에 강한 시스템 야구를 완성했다.”

일본 미야자키에서 스프링캠프를 마감한 서정환 KIA 감독은 8일 훈련 성과에 대해 “선수들의 치열한 내부경쟁으로 질적, 양적으로 성과가 좋았다”면서 “이번 전지훈련을 통해 득점찬스에서 점수를 낼 수 있는 시스템 야구를 완성했다”며 올 시즌 활약을 자신했다.

또 선발 마운드 운용에 대해선 “현재 김진우만 선발로 낙점된 상황이다. 김진우는 개막전 선발로 출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환 감독을 비롯한 KIA 선수단은 9일 오후 2시 30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

다음은 서 감독과 일문 일답.

-미야자키 전지훈련을 평가한다면.

▲선수들이 치열한 경쟁의식을 가지고 맹훈련을 소화해 냈다. 각 포지션별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 만족스럽다. 오히려 너무 열심히 훈련해 한기주, 윤석민, 신용운, 김진우 등 주전투수들의 페이스가 다소 빠른 감이 느껴질 정도다.

-아쉬운 부분은.

▲일본 현지의 프로팀과 많은 연습경기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이다. 우천 때문에 2경기 밖에 하지 못했다. 하지만 부족한 연습경기는 자체 홍백전으로 보완했다. 또 장문석, 고우석, 심재학 등이 부상으로 조기 귀국한 것이 아쉽다.

-집중적으로 실시한 훈련은

▲진투타에 중점을 둔 타격훈련에 집중했다. 지난 시즌에 타자들의 진투타(좌, 우 타자들의 밀어치는 타구)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홍백전 등의 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중견수와 우익수 쪽으로 타구가 많이 날아갔다. 짧은층으로 구성된 투수들은 실전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번트수비나 견제 백업플레이 등 기본기 훈련에 중점을 뒀다.



“김진우 개막전 선발로 낙점 중심타선 거포부재 아쉬워”

-올 시즌 기대되는 유망주는.

▲투수중에선 임준혁, 양현종, 진민호 등의 기량이 많이 향상됐다. 특히 진민호는 제구력이 향상됐고 대륙간컵대회 참가 이후 자신감까지 갖췄다. 타자중에선 이호신과 김연훈 등이 공·수·주에서 기량이 급상승한 선수들이다. 모두 백업요원으로 활용할 생각이다.

-선발 포지션 구성은.

▲1루수 장성호, 우익수 이용규, 좌익수 서튼 등 3명 정도만 결정됐고, 나머지 포지션은 무한경쟁이 진행 중이다. 올해는 이용규가 1번 타자로 나설 것이지만 타 팀의 좌완 선발이 많아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 또 최상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는 이종범의 활용 방안도 고민 중이다.

-마운드 구성은 어떻게.

▲개막전 선발은 김진우다. 5선발 가운데 김진우만 확정된 상태고 예서튼, 전병두, 이상화, 윤석민, 이대진 등을 놓고 저울질 중이다. 이들중 1명은 선발에서 제외된다. 임준혁이나 고우석, 장문석이 선발에 합류한다면 윤석민을 뒤로 돌릴 생각이다. 정민, 신용운을 중간으로 활용하고 마무리는 한기주가 맡을 것이다.

-연습경기 등을 통해 드러난 팀의 장, 단점은.

▲가장 큰 단점은 중심타선의 거포 부재다. 서튼과 이재주를 제외하고는 타선의 파괴력이 떨어진다. 장점은 시스템 야구의 완성이다. 주자 1, 2루 혹은 2루 출루 시 진투타를 치고 득점까지 성공하는 공격 성향의 시스템 야구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美 메이저리그 시범경기

찬호 ‘무난’ 병현 ‘불안’

“메츠맨”으로 새 출발하는 박찬호(34·뉴욕 메츠)가 올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시범경기 첫 선발 출격에서 무난한 출발을 보였다.

그러나 김병현(28·플로리다 로키스)은 두 번째 등판에서 4점이나 내주며 불안한 모습을 노출했다.

박찬호는 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애스의 시티오브팜스파크에서 열린 보스턴 레드삭스와 원정경기에서 선발 등판, 3이닝 동안 2안타 2볼넷 1탈삼진으로 1실점했다.

1회말 첫 타자 홀리우 투고를 볼넷으로 내보낸 박찬호는 2번타자 케빈 윌리엄스를 맞아 볼카운트 2-2에서 낙차 큰 체인지업으로 허를 찔러 삼진으로 돌려 세웠다.

차 30이닝 2피안타 1실점 송 2.10이닝 4볼넷 4실점

그러나 슬러거 데이비드 오티스와 풀카운트 대결 끝에 높은 공을 얻어맞아 첫 우전 안타를 허용했다.

실상가상으로 감타자 매니 라미레스를 볼넷으로 출루시켜 1사 만루를 자초한 뒤 J.D 드루의 타구 때 유격수쪽 병살타가 될 수 있는 타구를 투수받은 2루수 호세 발렌틴이 서두르다 공을 떨어뜨렸다.

발렌틴은 간신히 2루에서 포스아웃시킨 뒤 3루에서 오티스를 태그 아웃시켰으나 그 사이 투구가 홈을 밟아 1점을 내줬다.

1회에만 무려 30개의 공을 던진 박찬호는 2회 들어 제구가 잡히고 볼카운트를 유리하게 이끌면서 안정을 찾았다.

3명의 타자를 모두 뜬공으로 삼자범퇴시켰고 3회에는 윌리엄스에게 좌전 안타를 맞았지만 2사 1루에서 오티스를 2루 땅볼로 유도해 이닝을 마친 뒤 4회부터 애런 실리에게 마운드를 넘겼다.

투구 수 54개 중 스트라이크는 29개에 불과했고 최고 구속은 90마일(145km)이 찍혔다. 뒤를 이어 등판한 실리가 2이닝 동안 5피안타 4실점이나 하는 바람에 간접 비교에서 박찬호는 우위를 점했다.

김병현은 이날 밀워키 블루어스전에 조시 포그에 이어 4회부터 팀의 두 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올랐으나 2.1이닝 동안 안타와 볼넷을 각각 4개씩 내줘 4실점하고 강판 당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병규 “또 파울이네” 8일 오후 나고야돔에서 열린 세이부 라이온스 대 주니치 드래곤즈의 일본 프로야구 시범경기에서 4회말 2사 이후 타석에 들어선 이병규가 높이 솟아 오른 자신의 파울 타구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테니스 강 11일 ‘스피릿MC’ 방어전

“한국에서 열리는 종합격투기 대회에 올해 처음으로 출전해 영광입니다.”

한국계 혼혈 격투기 선수인 테니스 강(29·사진 왼쪽)이 11일 중구 장충동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스피릿MC 인터리그 5’대회에서 최정규(29·오른쪽)와 스피릿MC 헤비급 타이틀 1차 방어전을 앞두고 기쁨을 표시하면서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스피릿MC 헤비급 챔피언 테니스 강은 8일 중구 명동 서울 로얄호텔에서 출전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에서 처음으로 대회를 치르게 돼 영광”이라면서 “올해 내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또 정신력을 강화하



는데 좋은 경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4년 2월 ‘스피릿MC 인터리그 1’에 처음 출전한 테니스 강은 이 대회에서 8연승을 거두며 같은 해 9월 헤비급 초대 챔피언이 된 뒤 3년여 동안 정상 자리를 지켰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 참가자들 대회 극찬

“광주에서 좋은 추억만 가득 가득 담아 왔습니다.”

지난 1일 막을 내린 제 42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 대회가 전국의 마라토너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어내며 다시 한번 참가하고 싶은 대회로 극찬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대회에 참가한 국내외 마라토너들은 대회 준비나 코스 등 모든 면에서 최상의 대회였다며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또 대회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marathon.kwangju.co.kr)엔 광주 시민들의 친절함 모습과 깨끗한 도시 경관에 반했다는 참가자들의 칭찬글이 줄을 잇는 등 광주일보의 3·1절 마라톤 대회가 ‘친절 광주’를 알리는 홍보 도우미의 역할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관도 빼어난 최상의 코스”

마라톤 폴코스만 123번을 완주한 윤영규(69·대구·택시회사 운영)씨는 “그동안 국내 대회는 물론 일본, 중국 등 해외 마라톤 대회도 많이 뛰었지만,

광주처럼 편안하고 좋은 코스는 없었다”며 “특히 외지 마라토너들을 배려하는 대회 운영은 감동 그 자체였다”고 말했다.

윤씨는 “대회 주최측에서 전용 셔틀버스를 마련해 줘 1만5천원으로 마라톤도 즐기고, 광주 구경도 마음껏 했다”면서 “전국 어느 대회에서도 이처럼 친절하고 배려깊은 운영을 접하지 못했다. 내년 대회도 꼭 참가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일보는 이번 대회의 외지 참가자들을 위해 서울, 대구, 대전, 부산, 창원 등 5개 도시에 45인승 버스 7대를 배치, 왕복 운행했다.

경남 진주에서 참가한 강동섭씨도 “지금까지 마라톤대회에서 된 거리만 약 3천km에 이르는데, 이번 광주대회에서 최고의 감동을 느꼈다”며 “타 지역 마라톤대회에선 길을 완전히 통제해야 하는 마라톤의 특성상 곳곳에서 차량운전자와 경찰, 대회관계자

간 실랑이가 벌어지는데 광주에선 시민들이 너무나도 뜨겁게 호응해 줘 정말 즐겁게 달렸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시민들 호응 커 즐겁게 달렸다”

외국인 참가자인 팻 노블(50·폴코스)과 마티무쵸(41·하프코스), 안젤라 맥슨(33·여·하프코스), 수

잔보로(33·여·10km) 등 외국인 남녀 4명도 “광주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다. 바람과 경관, 경기장 시설 등도 최상이었다”면서 “다음 대회 때도 꼭 참석하고 싶다”는 감사의 이메일을 대회 운영팀에 보내 왔다.

부산에서 남편과 함께 폴코스에 참가해 완주했다는 신영옥씨는 대회 인터넷 게시판에 “광주를 첫 방문했는데 아름다운 코스는 물론 시민들과 대회 운영팀의 친절함 배려에 가슴벅찬 감동을 느꼈다”며 “특히 대회 끝난 후 운영 본부에서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혹시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있었으면 이해해 주시고 참가해 주셔서 감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내왔다. 마지막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해 준 광주일보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글을 남겼다.

서울 러닝클럽의 김성수씨는 “깔끔하고 정성이 묻어나는 대회 진행방식에 매료돼 매년 3·1절 대회를 참가하고 있다”며 “이번 대회도 시민들의 환영인파와 여러 자원봉사자들의 세심한 배려속에 정말 재미있게 달렸다. 3·1절 대회는 한국 최고의 마라톤 대회”라고 평가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친절하고 배려 깊은 운영 또 참가하고픈 최고의 대회”